

흠린 평평 ~ 무등산생태요양병원, 레인보우 압도

광주일보 무등기 사회인 야구...4강 진출팀 확정

무등기 준결승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5주차 경기가 지난 11일 무등중학교 야구장에서 진행됐다. 광일리그 8강전을 통해 무등기 4번째 우승기에 도전할 준결승진출팀 모두 정해졌다.

4주차 경기를 통해 가장 먼저 4강에 선착한 레드위너스에 이어 무등산생태요양병원, 오렌지클래쉬, 백구클럽이 준결승 고지에 올랐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공수에서 광주 레인보우를 압도했다. 4회 박경남의 솔로포와 이범석의 스피리 등으로 11점을 뽑은 무등산생태요양병원은 투수 김건국의 호투에서 11-0 완승을 거뒀다.

오렌지클래쉬도 막강 화력으로 17-3,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오렌지클래쉬는 1-0으로 앞선 2회 대거 11점을 뽑아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전통의 강호 백구클럽도 4강에 안착했다. 백구클럽은 광주신나부리야구단과의 경기에서 8-0, 5회 콜드승을 거뒀다. 백구클럽의 이호웅은 3회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4강행을 자축했다. 한편 오는 18

일에는 무등기 준결승전이 치러진다. 무등리그에서는 허버베이스볼클럽, 베프스, 패가수스, 세한기업재규어스가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경기
무등산생태요양병원 02342-11
광주레인보우 00000-0
▲승리투수 : 김건국
▲흠린 : 박경남(4회1점), 이범석(4회3점·이상 무등산생태요양병원)

◇2경기
오렌지클래쉬 11123-17
(4회 콜드승)
광주슈퍼스타즈 0201-3
▲승리투수 : 최정민강

◇3경기
광주신나부리야구단 00000-0
백구클럽 10403-8
(5회 콜드승)
▲승리투수 : 조철휘
▲흠린 : 이호웅(3회2점·백구클럽)



충장축제 속 생활체육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관한 제2회 광주 동구청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가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충장축제 행사장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상에 발목 잡힌 '도마의 신'

세계선수권 3연패 실패...北 리세광 1위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이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에 실패했다.

양학선은 12일 중국 난닝 광시스포츠센터 테니스관에서 열린 2014 국제체조연맹(FIG)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4.416점으로 결선에 오른 8명 가운데 7위에 그쳤다. 양학선이 시니어 데뷔 이후 도마 금메달을 놓친 것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에 발목을 잡혀 세계 정상 자리에서 잠시 내려온 양학선은 아시안게임 직후 열린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명예 회복을 노렸다. 2011년과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2연패에 성공한 양학선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연패의

위업에 도전했다.

양학선은 도마 예선에서 난도 6.0의 '여2'(도마를 앞으로 짚은 뒤 두 바퀴 반 비틀기)와 '쓰키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 비틀기)로 1위로 통과하며 대회 3연패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그러나 결선에서 신기술 '양학선2'(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 반 비틀기)와 역시 세계 최고 난도 6.4의 '양학선'(도마를 앞으로 짚고 세 바퀴 비틀기) 기술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또 한 번 쓴맛을 봤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4위에 그쳤던 북한의 체조영웅 리세광(29)은 15.416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크라이나의 이고르 라디비로프가 15.333점으로 은메달, 미국의 제이콥 달턴이 15.199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학강초, 광주 초등 야구 왕좌

추계대회 수창초 누르고 우승... MVP에 김녹원

학강초가 2014년도 추계 초등학교 야구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학강초는 최근 분당리뜰구장에서 열린 수창초와의 대회 결승에서 10-5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기를 가져갔다.

리그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학강초는 첫 경기 상대였던 송정중고를 10-3, 4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두 번째 상대 수창초와 승부 치기 접전 끝에 5-11로 패를 기록했지만 대성초를 13-6, 5회 콜드승으로 제압하고 2승 1패로 A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서석초와의 준결승에서 11-3으로 승리

를 거둔 학강초는 다시 만난 수창초를 10-5로 누르면서 우승팀이 됐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김녹원(학강초) ▲우수투수상 : 김대홍(학강초) ▲타격상 : 김성도(화정초·9타수 7안타 0.777) ▲최다투수상 : 정지태(학강초·5개) ▲최다타점상 : 김관성(학강초·7타점) ▲감투상 : 김준모(수창초) ▲미기상 구동규(서석초) ▲감독상 : 최태영(학강초) ▲지도상 : 정중숙 학교장(학강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임준섭·한승혁서 'KIA 내일' 봤다



임, 111일만에 5승
한, 선발 복귀 '합격'
주말 삼성전 1승 1패

1승1패 아쉬움은 있지만 수확은 있었다. KIA가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과의 2연전에서 1승1패를 주고받았다. 11일 5-4로 1점차 승리를 거뒀던 KIA는 12일 4-8패를 기록했지만 안방 삼성전 6연패는 끊어냈다. 선발로 출격한 임준섭과 한승혁이 아쉬움 속에 희망을 남겼고 심동섭의 마무리 테스트도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이번 주말 2연전에 앞서 KIA와 삼성의 전적은 2승11패였다. 홈에서는 6전 전패. 주말 결과에 따라 삼성이 남의 안방에서 정규리그 4연패를 확정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KIA는 어렵게 연패를 끊어내며 삼성의 우승 확정 날짜를 미뤘다.

내년 시즌 마운드 구상에 중요한 '젊은 피' 임준섭·심동섭·한승혁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11일 선발로 출격한 임준섭은 5이닝 4피안타(1홈런) 5사사구 1탈삼진 3실점의 피칭으로 5승을 기록했다. 지난해 4승을 쟁겼던 임준섭은 111일 만에 승리를 추가하며 한발 더 나아갔다. 이번에도 사사구가 실점의 빌미가 되면서 속제를 남겼지만 이날 경기로 규정 이닝을 채우는 등 시즌 값진 경험을 채웠다. 심동섭도 9회 2사2루에서 나바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3번째 세이브를 올렸다.

5회를 넘지지는 못했지만 한승혁도 선발 복귀전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

한승혁은 3회까지 삼자범퇴를 하며 괜찮은 출발을 했다. 4회 볼넷이 아쉬웠다. 1사에서 첫 볼넷을 내준 뒤 노련한 채태인과 이승엽에게 안타를 맞으며 1실점을 했다.

5회 선두타자 박해민을 내보낸 한승혁은 연속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맞았고, 채태인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은 뒤 마운드에서 일찍 물러났다. 볼넷이 아쉬웠지



임준섭



한승혁

만 예전의 들쭉날쭉한 제구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KIA 최고의 '파이어 볼러'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최고 153km 강속구를 연달아 뿌리며 시원한 피칭을 보여줬다. 포크볼도 위력적이었다.

패배의 아쉬움을 달래준 시원한 한방도 있었다. 김주형이 7회 권혁을 상대로 시즌 7번째 홈런포를 날리며 팀의 3400홈런을 완성했다. 프로야구 두 번째 기록이다. 이성우도 3-8로 뒤진 9회 박근홍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2008년 10월2일 광주 SK

전 이후 첫 홈런이자 자신의 통산 2호포를 남겼다.

삼성의 촉베는 피해간 KIA. 13일 또 다른 산이 기다린다. 어렵지만 아직 1위 가능성을 남겨놓은 넥센이 기록에 도전하는 서건창과 박병호를 앞세워 광주를 찾는다. 11일 이승엽이 가지고 있던 시즌 최다득점(128) 기록을 넘어선 서건창은 1994년 이종범이 만든 최다안타(196개) 경신을 노리고 있다. 박병호의 통산 4번째 50홈런에도 하나가 남아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아웃 특·특·특

▲“갑나 좋아요.”

111일 만에 승리투수가 된 최완 임준섭의 소감은 “갑나 좋아요”였다. 임준섭은 지난 1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5이닝 4피안타(1홈런) 5사사구 1탈삼진 3실점의 피칭으로 시즌 5승에 성공했다. 6월22일 두산전 이후 10번의 선발 등판과 4번의 구원 등판에서 7패만 쌓았던 임준섭에게는 애당초 기대했던 승리였다. 특히 1위 올 시즌 안방에서 열린 삼성전 6연패를 끊고 거둔 1점차 승리라 더욱 의미가 있었던 승. ‘부산 사나이’ 임준섭의 입에서 ‘갑나’라는 사투리가 연달아 나올 정도로 기분 좋은 하루가 됐다.

선감독, 신인들 실수 연발에 “허영게들 떴어”

▲“총게 말해보죠.”

타자들이 한번 공격을 하고 추가점을 내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던 한대화 수석코치. 마침 한 수석코치 눈에 훈련을 끝내고 라커룸으로 돌아가던 고삼 김병현이 포착됐다. 한 수석코치는 “후배들이 한번 치고나면 추가점을 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애들한테 뭐라고 좀 해보라”며 농담반진담반 베테랑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화려한 경력으로 후배들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인 김병현. 김병현은 “총게

말해보죠”라고 씩 웃으며 라커룸으로 향했다.

▲“경험들이 없다보니까 허영게들 떴어.”

신인급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해 얘기하던 선동열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허영게들 떴어”라며 웃었다. 경험들이 부족한 탓에 실수를 하고 나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선 감독의 설명이었다. KIA에서는 내야수 강한울과 박찬호, 포수 백용환, 투수 최현정 등이 좌충우돌 실수 연발 속에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